

광장정치의 논리

-카시러(Ernst Cassirer)의 견해를 중심으로-*

신 응 철**

주제분류 문화철학, 문화해석학, 정치철학

주요어 광장정치, 정치적 신화, 영웅숭배, 인종불평등, 파시즘

요약문

최근 한국사회는 극단적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들이 결국 두 쪽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광장정치가 대의정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광장정치의 현실 앞에서 철학은, 철학자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광장정치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시대가 요청하는 철학의 실천과 철학자의 역할을 곰곰이 되새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의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나치정권에 치열하게 항거하고 나치즘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들추어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장정치의 논리를 규명하는데도 그의 예리한 통찰은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철학의 실천과 철학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광장정치의 현상에 대해 철학적인 규정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광장정치의 기제방식과 작동원리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궁극적으로는 광장정치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2019년 최근 한국사회는 극단적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가족들과 본인이 수많은 범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혐의자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취임식에서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스스로 정권의 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정한 법 집행을 주관해야 하는 법무부의 수장을 정반대의 인물로 채웠으니 말이다. 필자는 이 사안에서 한 개인의 범법행위, 탈법행위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고위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리(道理), 염치(廉恥), 상식(常識)의 문제가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를 벗어나 있는데도 대통령과 해당 장관은 아무 문제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처신하고 국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결과 평등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들은 좌절과 분노를,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한 대다수의 기성세대들은 박탈감과 절망을,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목도한 일반 국민들은 배신감과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당파적 이해관계와 이념적 대결국면이 맞물리면서 견잡을 수 없는 혼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들이 결국 두 쪽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대학교수, 작가, 지식인, 종교인들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이 양상은 급기야 두 진영의 세력 대결이 된 광장정치를 불러일으켰다. 수도 서울의 도심은 광장정치의 장으로 탈바꿈하였다. 대통령과 여당은 사태 수습의 역량을 발휘조차 못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광장정치(廣場政治)가 대의정치(代議政治)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광장정치의 현실 앞에서 철학은, 철학자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 목적이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11번째 테제에서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광장정치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시대가 요청하는 철학의 실천과 철학자의 역할을 곰곰이 되새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의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나치정권에 치열하게 항거하고 나치즘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들추어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장정치의 논리를 규명하는데도 그의 예리한 통찰은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철학의 실천과 철학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광장정치의 현상에 대해 철학적인 규정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광장정치의 기제방식과 작동원리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궁극적으로 광장정치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철학의 실천과 철학자의 역할

카시러는 「철학과 정치」(1944)에서 현실세계에서 철학의 실천이 어려운 일반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우리가 자극을 받는 것은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서적 감정에 의해서다. 자극은 우리의 직접적인 요구가 가져오는 절박함이나 긴급함에 의한 것이지 일반적인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철학은 너무나 추상적이며, 우리의 직접적 요구라는 이 영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철학은 고매한 사변(思辨)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현실세계, 우리의 정치생활이나 사회생활과는 극히 몇 안 되는 관계밖에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와 같은 사변은 우리

의 지적인 호기심을 환기시킬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실제적 문제들에 관계되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무시하기 십상이다.¹⁾ 그런데 영국에서의 로크와 그의 제자들의 정치철학, 프랑스에서의 백과전서파 사상들, 독일에서의 칸트와 그의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비판이 등장하였다. 카시러는 이들 활동의 공통 입장은 인간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가장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나름의 철학적 해답을 찾아내려는 노력이었다고 파악한다.

그렇지만 카시러는 철학의 실천이 여전히 지지부진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첫째, 헤겔 철학의 영향이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의 정초』(1785)에서 무릇 이 세계 내에서 또는 세계 밖에서조차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선의지’ 이외에는 생각될 수 없을 것²⁾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칸트의 이러한 윤리적 원리를 헤겔은 끊임없이 비판하였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은 『정신현상학』(1806)에서 칸트가 말하는 선의지와 같은 심정의 법칙은 우리 개개인의 사적 생활에서는 하나의 규칙으로 간주될지도 모르지만 참된 현실, 즉 역사나 정치, 국가 생활 위에서는 아무런 힘도 갖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우리는 세계의 경과나 커다란 정치적 활동을 개개인의 도덕적 의식이라는 사소한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역사는 ‘절대적 이념’의 구체화이다. 그것은 시간에 있어서의 ‘정신의 발전’이다. 그리고 국가는 지상에 현존하는 바의 ‘신적인 이념’으로 규정된다. 이 신적인 이념에 대면할 때 개인 그 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란 윤리적 실체, 즉 자기 확신적인 절대정신

1) 에른스트 카시러, 「철학과 정치」(1944), 『상징 신화 문화』, 심철민 옮김, 아카넷, 2012. 330쪽.

2) Kant,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and Other Works on the Theory of Ethics*, trans. T.K. Abbott, 6th. ed. London: Longmans, Green, 1909. 6쪽.

으로서, 선과 악, 치욕과 비천, 우둔과 기만이라는 추상적 규정을 승인하지 않는다.³⁾

카시러는 이러한 헤겔철학의 국가관의 영향에서 철학의 실천이 그만큼 어려웠음을 지적하고 있다. 철학이 자신의 회색을 회색으로 칠할 때, 삶의 모습은 이미 노후해지고 만다. 회색에 회색을 칠함으로써 삶의 모습이 다시 젊어질 수는 없고 다만 인식될 뿐이었다. 그 결과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찾아들면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⁴⁾

둘째, 슈펜글러(Oswald Spengler 1880-1936)의 『서구의 몰락』(1918)에 담긴 사상이다. 이 책에서 슈펜글러는 인간의 문화적 삶이라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슈펜글러는 주어져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조금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의도는 그 상황을 서술하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명료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일체의 문화적 이상의 몰락과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고나 의지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숙명(宿命)’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는 단언하였다.⁵⁾

카시러에 따르면, 헤겔조차도 스스로 절대적 이념의 전개로 여겼던 역사의 경과를 찬미하고 신성시 했다. 그 점에서 세계사는 세계의 심판이었다. 이 최고 법정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항소도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헤겔은 역사의 알려지지 않은 진보를 믿었다. 그리고 이 진보는 그에게 자유의 의식상의 진보를 의미했다. 그런데 슈펜글러의 견해는 헤겔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었다. 슈펜글러의 철학에서 자유의 관념은 ‘필연성’과 ‘운명’의 관념으로 바뀐다. 한마디로 그의 체계는 ‘역사적 운명

3)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52. 355쪽.

4)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ed. Johannes Hoffmeister, 4th.ed.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52. 355쪽. 에른스트 카시러, 「철학과 정치」(1944), 『상징 신화 문화』, 339쪽.

5) 에른스트 카시러, 「철학과 정치」(1944), 『상징 신화 문화』, 340쪽.

론'의 체계이다. 우리의 문화적 삶이란 최종적으로 운명 지워져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위험을 피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카시러는 이러한 슈팽글러의 사상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 각 개인의 모든 지능이 돌연 마비된 것처럼 느낄 것이고, 우리는 비참하고 냉혹한 '운명'의 멍에에 얽매어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슈팽글러의 사상의 영향이 결국 철학의 실천을 더디게 만든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이 카시러의 판단이다.

셋째,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의 『존재와 시간』(1927)에 드러난 실존철학의 영향이다. 카시러의 견해에 의하면, 이 책은 후설철학의 정신과 전적으로 대립된다. 후설은 논리학의 원리들을 분석함으로써 출발했다. 후설의 궁극적 목표는 철학을 하나의 '엄밀한 학'으로 만들어 이것을 부동의 사실들과 의심할 수 없는 원리들 위에 정초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경향은 하이데거와는 전혀 맞지 않았다. 하이데거는 영원한 진리라든가 철학적 사고의 엄격한 논리적 방법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가 논리적인 철학을 건립하고자 해도 그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실존철학' 뿐이다. 철학자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실존의 진리뿐이며, 이 실존은 항상 역사적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그 개인이 생존해 있는 역사적 조건들과 결부되어 있다. 이들 조건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시러는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피투성'(Geworfenheit) 개념, 즉 인간의 '내던져져있음'에 주목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 내던져있다는 것은 인간적 삶의 기초적이고 불변하는 조건이다. 인간은 이 흐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으며, 그 진로를 바꿀 수도 없다. 인간은 그 실존의 역사적 조건들을 수용해야만 하며, 그 운명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카시러는 슈팽글러나 하이데거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상의 전반적인

경향과 1차 세계대전이후의 독일의 정치적 사회생활 사이에 어떤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⁶⁾ 그리고 카시러는 철학이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신뢰하지 않게 되자마자, 그리고 철학이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에 굴복하자마자,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제’를 완수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그 경우 철학은 인간이 개인적 사회생활을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자기의 활동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가르쳐줄 수가 없다. 결국 카시러는 **인간문화의 몰락이나 피할 수 없는 붕괴에 관한 암울한 예언에 빠지는 철학, 그리고 모든 주의력을 오로지 피투성에 기울이는 철학은 더 이상 철학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⁷⁾ 그런 점에서 카시러는 슈팽글러의 문화적 비관주의와 하이데거의 실존사상이 독일 나치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형성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예들려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카시러는 철학의 실천이 힘들었던 배경들을 살펴본 뒤, 이제 철학적 실천의 모범적 사례로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zer 1875-1965)를 소개하고 있다. 슈바이처는 인간문화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였다. 그는 현대 문화의 위기를 낳은 책임은 두 가지 사태, 즉 하나는 **‘민족주의의 우세’**, 다른 하나는 **‘집단적 정신’의 압도적 영향**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민족주의란 ‘극도로 과장된 저열한 애국심’이다. 그것이 고귀하고 건강한 애국심에 대해 갖는 관계는 정확히 우둔한 자의 고정관념이 정상적인 확신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그리고 집단적 정신에 대해 슈바이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대인은 역사상 선례가 없는 방식으로 집단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자기 자신의 본성에 관해 현대인의 관심은 감소하고 그 결과 그는 사회나 언론기관이 유포시키는 기성화된 견해에 대해 거의 병적일 정도로 민감하게 되었다.

인간 문화의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이념이 이렇게 분열되고, 붕괴될 때

6) 에른스트 카시러, 「철학과 정치」(1944), 『상징 신화 문화』, 344쪽.

7) 에른스트 카시러, 「철학과 정치」(1944), 『상징 신화 문화』, 344쪽.

철학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슈바이처는 묻고 있다. 철학이 그 지식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대해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국외자가 되고 말았다.

“철학이란 이성 일반의 안내자요 관리인이다. 철학은 우리의 문화가 기대고 있는 그 이념들에 대해 우리가 투쟁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어야 했다. 훈련되었거나 훈련되지 못한 문화적 이념들의 문제를 연구하는데 모든 노력들이 집중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위험한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경비원은 졸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맞서 싸우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⁸⁾

그래서 카시러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이론철학의 영역에 참여했던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슈바이처의 이러한 비판을 달게 받아야한다고 말한다. 카시러는 그 자신도 예외가 되지 않으며, 거기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카시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학술 개념으로서의 철학에만 매달리게 될 경우,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자주 철학과 세계와의 참된 관계, 즉 철학의 실천 문제를 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카시러는 이제 철학은 ‘세계’와 관계되어야 하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책임’의 문제를 나름의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⁹⁾ 그리고 하나의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진리와 같은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일찍이 선조들이 도덕의 이념, 인간성의 이념이라고 이해했던 그와 같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일반적으로 개인을 초월하는, 국가를

8) Cassirer, “Albert Schweitzer as Critic of Nineteenth Century Ethics” in *The Albert Schweitzer Jubilee Book*, ed. A. A. Roback (Cambridge, Mass: Sci-Art Publishers, 1946), 241쪽-57쪽.

9) Donald Phillip Verene, ed., *Symbol, Myth, and Culture: Essays and Lectures of Ernst Cassirer 1935-1945*,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9. 60쪽. (이후, SMC로 표기함.)

초월하는, 민족을 초월하는 그러한 윤리적 주장이 존재하는가? 등의 물음이 제기될 때, 철학은 옆으로 비켜있거나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카시러는 말한다. 만일 철학이 그 동안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 철학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해야할 시기이며,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그것의 체계적 근본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의 정신적-역사적 과거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반성해야할 시기라고 카시러는 말한다.¹⁰⁾

3. 광장정치의 현상,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장정치의 현상에 주목해보자. 광장정치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고, 광장정치에 들어있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카시러는 신화와 신화적 사고, 나아가 정치적 신화, 정치적 신화의 기술이 광장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카시러에 따르면, 신화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인식적 사변적 해석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의 생활 형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화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상 이루어진 행위 내에서 이해할 때에 비로소 이해하기 쉬워진다.

원시인들에게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적 지식에 대한 합리적이며 경험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신화와 그것에 맞는 의식적 실행들은 특히 ‘위기상황’에서, 그리고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말하자면 생명 순환적 과도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¹¹⁾ 카시러에 따르면, 신화는 공동체에 형식을 제공하며, 이 사회적 형식 또한 위기 발생 시에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만일 엄청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사회경제적 성격을 지닌다면, 그때 신화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10) Cassirer, SMC, 61쪽.

11) Cassirer, *The Myth of the Stat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46. 278쪽.(이후 MS로 표기함.)

신화는 각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집단과의 일체감을 심어준다. 카시러는 이것을 신화의 ‘정치철학으로의 침투(浸透)’¹²⁾라고 말한다.

카시러가 볼 때, 현대 정치사상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두려운 양상은 하나의 새로운 세력의 출현, 그러니까 **신화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출현**이다.¹³⁾ 그런 점에서 정치 제도들 가운데 몇몇의 경우 신화적 사고가 이성적 사고보다 우세하였다고 카시러는 확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장정치의 이면에도 바로 그와 같은 측면이 들어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의 광장정치에 들어 있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특히 여러 정치적 신화들¹⁴⁾ 가운데 어떤 것들이 우리의 광장정치의 현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일까? 필자는 영웅숭배론과 인종불평등론이 광장정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1) 광장정치와 영웅숭배론

영국 출신의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이 1840년 5월에 행한 강연 “영웅, 영웅숭배 및 역사에 있어서의 영웅적인 일에 관하여”¹⁵⁾는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후 국가사회주의, 즉 독일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카시러는 판단한다.¹⁶⁾ 그렇다면 원래 칼

12) Cassirer, MS, 279쪽.

13) Cassirer, MS, 3쪽.

14) 카시러는 20세기에 가장 위력을 떨친 정치적 신화들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거기서 그는 칼라일의 영웅숭배론, 고비노의 인종불평등론, 슈펜글러의 운명론, 헤겔의 국가 이념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다. 여기서의 필자의 논의는 拙著, 『카시러의 문화철학』, (한울출판사, 2000.) 제4장과 『문화철학과 문화비평』(철학과현실사, 2003.) 제5장에 더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15) Thomas Carlyle, *On Heroes, Hero 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Humphrey Milford, 1841, Reprinted, 1928.
(번역서: 『영웅숭배론』(박시인 역), 을유문화사, 1963.)

16) Cassirer, MS, 190쪽.

라일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칼라일은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공고한 요소는 다름 아닌 영웅숭배라고 보았다. “영웅숭배는 가장 고결하고 신에 가까운 형태의 사람에 대한 충성심으로부터 무한한 경배(敬拜)요 복종(服從)이며 열광(熱狂)이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자체의 맹아가 아닌가?”¹⁷⁾ 칼라일은 이와 같은 생각에서 더 나아가 역사적 생활 전체를 영웅들의 생활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는 영웅들이 없으면 역사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카시러는 칼라일이 말하는 영웅을 ‘변형된 성자’, 다시 말하면 ‘세속화된 성자’로 파악한다. 그런 측면에서 칼라일에게서의 영웅은 ‘시인’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으며, ‘문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현세적인 성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영웅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칼라일은 즉답은 피하고 있으며, 다만 누가 위대한 영웅적인 사람들이었는가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카시러가 볼 때 칼라일의 영웅론에 대한 주장은 그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한편 카시러는 칼라일의 영웅숭배론의 형이상학적 근거를 제공해 준 이로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를 꼽는다. 18세기 철학자들은 철저한 개인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이성의 평등’에 대한 맹신에서 인간의 ‘평등한 권리’라는 주장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피히테는 이성의 평등에 대한 주장을 한갓 주지주의적 편견으로 파악하였다.¹⁸⁾ 피히테는 이성이 실천이성, 즉 도덕적 의지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결코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은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 소수의 위대한 인격 속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다름 아닌 영웅들이며, 인류 문화의 최초의 개척자들이라고 말한다.¹⁹⁾ 피히테의 이와 같은 생각을 이어받고 있는 칼라일에 따르면, 영웅

17) Cassirer, *MS*, 192쪽.

18) Cassirer, *MS*, 215쪽.

승배가 인간 본성 속에 있는 ‘근본적 본성’이며, 만일 이것이 전적으로 말살되면 인류를 절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⁰⁾

현대의 파시즘 옹호론자들은 칼라일의 영웅승배론과 관련하여 칼라일의 말들을 쉽게 정치적 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칼라일의 정치이론은 그 근거에 변장되고 변형된 칼빈주의로 볼 수 있다고 카시러는 지적한다.²¹⁾ 참된 자발성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만 있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버림받은 대중은 이 선택된 자, 말하자면 통치자로 태어난 자들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카시러는 칼라일이 사용하는 ‘영웅주의’와 ‘리더십’의 개념이 현대 파시즘 이론에서의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칼라일에 대해서는 참 영웅과 가짜 영웅을 쉽게 분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찰력’(insight)과 ‘성실성’(sincerity)이다.²²⁾ 이런 측면에서 칼라일은 큰 정치 투쟁에 있어서 거짓말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거짓말이 정당한 무기가 될 수도 없다고 말한다. 카시러는 이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카시러는 칼라일의 입장과 다른 유형의 영웅승배론을 구별하고 있다. 칼라일이 영웅들에게서 가장 찬탄한 일은 ‘**감정의 성실성**’ 뿐만 아니라 ‘**사상의 명석성**’이다. 이 두 요소의 균형이 참 영웅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칼라일은 파악하였다.²³⁾ 그리고 칼라일의 이론에서 영웅들의 성격을 이루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힘의 매우 다층스러운 결합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힘들 가운데 ‘**도덕적 힘**’(moral force)이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며, 또 압도적인 역할을 맡

19) Cassirer, *MS*, 216쪽.

20) Cassirer, *MS*, 216쪽.

21) Cassirer, *MS*, 193쪽.

22) Cassirer, *MS*, 216쪽.

23) Cassirer, *MS*, 217쪽.

는다. 칼라일의 철학에서 ‘도덕성’(morality)은 부인과 부정의 세력에 대한 긍정의 세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정된 것보다도 오히려 긍정의 행위 자체 그리고 이러한 긍정의 행위의 강도에 있다.²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카시러는 칼라일의 이론이 파시즘 옹호자들에 의해 그 원래의 중심적 주장과는 상당히 왜곡된 채 이해되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시러는 20세기 제국주의 및 국가주의와 칼라일의 영웅숭배론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칼라일이 ‘힘은 정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힘’은,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카시러는 주목한다. 그 점에서 영웅숭배는 언제나 ‘도덕적 힘에 대한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칼라일의 영웅숭배론이 왜곡되어 활용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칼라일 사상의 본래 취지와 뜻을 제대로 확인하자는 것이 카시러의 주된 입장이다.

2) 광장정치와 인종불평등론

프랑스의 고비노(Joseph-Arthur Gobineau, 1816-1882)는 『인종불평등론』(1853-1855)에서 유전되는 신체적 특징과 성격·지능·문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비노의 인종불평등론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 인류의 여러 인종 가운데 백인종만이 문화적 생활을 건설하는 의지와 힘을 가진 ‘유일한’ 인종이라는 것이다.²⁵⁾ 이 생각은 인종들 간의 근본적 차이를 주장하는 것이다. 흑인종과 황인종은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의지도 그들 자신의 아무런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은 그 주인들의 수중에 있는 죽은 물질이요, 보다 높은 인종에 의하여 움직여

24) Cassirer, *MS*, 218쪽.

25) Cassirer, *MS*, 226쪽.

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무기력한 집단으로 간주될 뿐이다.

고비노에 의하면 “흑인종과 황인종은 거친 천이요, 무명이며, 양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백인종이 이것 위에 그들 자신의 우아한 명주실을 짠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일이다.”²⁶⁾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 문화도 중국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이주해 온 외래 종족, 그러니까 중국을 침입해서 이를 정복하고 중앙왕국과 중화제국의 기초를 닦은 크샤트리아 족(Kschattriyas)의 소산이다.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문명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가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는 오직 백인종들과의 접촉에서만 생긴다.”²⁷⁾라는 사실이 고비노 이론의 제1원리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고비노의 역사가관은 ‘숙명론적’(fatalistic)²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역사는 일정하고 냉혹한 법칙을 따른다. 우리는 사건의 진로를 변경시키기를 바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운명은 처음부터 ‘예정(豫定)’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고, 인간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고비노의 생각이었다.²⁹⁾ 고비노에게서 인종은 역사적 세계의 유일한 주인이요, 지배자라는 것, 다른 모든 세력들은 그 심부름꾼이며 위성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노의 이론이 현대적 의미의 전체주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오용될 소지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고비노 이론의 핵심은 그것과는 달랐다고 카시러는 지적한다. 고비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종에 대한 찬미’ 자체가 아니다. 자신의 조상, 가문, 혈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다.

26) Cassirer, *MS*, 227쪽.

27) Cassirer, *MS*, 228쪽.

28) Cassirer, *MS*, 225쪽.

29) Cassirer, *MS*, 225쪽.

카시러는 고비노의 인종불평등론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다.

첫째, 다른 모든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이다.³⁰⁾ 말하자면, 인종이라는 신(神)은 시기하는 신이다. 그는 자기 이외에 숭배될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인종이 전부이다. 다른 세력들은 아무 것도 아니며, 독립적인 가치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만일 인종 이외의 다른 것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율적인 힘이 아니라 전능한 존재인 인종이 이것들에게 위탁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둘째, 고비노에게서는 18세기의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이념이 장애가 되었다. 이 이념들은 종교에 근거하기보다는 철학적 윤리학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상 이 이념들은 칸트의 저서 속에서 가장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칸트 저서에서의 핵심은 ‘자유’(freedom)의 이념인데, 이 자유는 ‘자율’(autonomy)을 의미한다. 이 이념은 도덕적 주체는 그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 외의 다른 어떤 규칙에도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의 표현이다. 인간은 외부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목적의 왕국에 있어서의 입법자’이다. 칸트에 따르면, “목적의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값 혹은 존엄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도덕성과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인간만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³¹⁾ 이 모든 것은 고비노에게서 전혀 알 수 없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한 마디로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존엄성(dignity)이란, 개인적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는 남을 열등한 존재로 내려다보지 않고서는 이 우월성을 의식할 수가 없다. 모든 위대한 문명과 모든 고귀한 인종에 있어서 이것은 지배적 특징이었다고 고비노는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고비노에게서 보편적 윤리의 기준과

30) Cassirer, *MS*, 232쪽.

31)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Sec. 2, “Werke” ed, E. Cassirer, IV, 293쪽.

가치를 찾는 일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에게서 보편성이란 속악(vulgarity)을 의미할 뿐이었다.³²⁾

셋째, 고비노에게서는 인종의 본능이 모든 철학적 이상과 형이상학적 체계보다 훨씬 우월하다. 우월한 인종들(예컨대, 아리안 족)은 그들의 발아래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다른 인종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만 그들이 어떤 존재며, 또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 고비노는 생각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칸트의 정언명법의 공식은 말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고비노가 볼 때, 그 격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하라는 격률은 불가능하다. 보편적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보편적 법칙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경우에 타당할 것을 주장하는 칸트의 윤리적 격률은 어떤 경우에도 타당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칙은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격적, 역사적 세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한갓 추상적인 공식에 불과하다.³³⁾

고비노의 이론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인종주의(racism)와 국가주의(nationalism)로 이어지는데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비노의 이론 자체에서 본다면 결코 그는 국가주의자도(nationalist) 애국주의자(patriot)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카시러는 주장한다.³⁴⁾

4. 광장정치의 기제방식과 작동원리

이제 신화적 사고와 정치 세력의 결탁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광장정치의 기제방식과 작동원리는 어떤 것인지 카시러의 분

32) Cassirer, *MS*, 236쪽.

33) Cassirer, *MS*, 236쪽.

34) Cassirer, *MS*, 239쪽.

석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신화는 인간 문화에서의 단지 일시적이 아니라 영속적 요소이다. 인간은 전면적으로 이성적 동물인 것은 아니다. 인간은 신화적 동물이며 또한 그렇게 존속한다.³⁵⁾ 신화는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인간 문화의 가장 진보적인 단계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인간 생존 전체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영속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동시에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생활이 위협에 직면할 때, 신화는 그 오래된 위력을 회복한다.**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한 나치의 정치가들은 독일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정치적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카시러는 파악한다.

둘째, 카시러는 인류학자 두떼(E. Doutté)의 말을 인용하면서 신화는 ‘**인격화된 집단적 욕망**’이라고 보았다.³⁶⁾ 이 근본적 성격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정치적 신화 안에 보존되어 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의 ‘사상’ 체계가 아니라 가장 **격렬한 감정의 소요(騷擾)**이다. 이 격렬한 감정들 모두는 하나의 곳으로 초점이 모아지는데, 바로 **총통(지도자)에게 투여되어 인격화되고 신성화되었다.**³⁷⁾ 그 점에서 두떼의 이 표현은 ‘지도력’과 ‘독재’에 대한 현대적 개념의 가장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지도력에 대한 욕망은 오직 집단적 욕망이 압도적으로 커졌을 때, 그리고 한편 이 욕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킬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에만 나타난다. 이런 때가 오면 이 욕망은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격화된다. 집단적 욕망의 강렬성은 지도자 속에 체현된다. 이미 있어왔던 사회적 속박물들-법률, 정의 및 여러 조직들-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선언된다. 오직 남은 것이라고는 영도자의 신화적인 권력과 권위뿐이고, 영도자의 의지는 최고의 절대적인 율법이 된다.³⁸⁾ 나치의 정

35) 에른스트 카시러, 「현대의 정치적 신화의 기술」(1945), 『상징 신화 문화』, 368쪽.

36) Cassirer, *MS*, 280쪽.

37) 에른스트 카시러, 「유대교와 현대의 정치적 신화」(1944), 『상징 신화 문화』, 356쪽.

38) Cassirer, *MS*, 280쪽.

치적 신화를 통해 표출된 집단적 욕망은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었다. 천년왕국은 ‘모든 희망이 충족되고 악(惡)이 송두리째 제거되는 시간이라는 관념’으로서 정치적 신화를 통해 게르만 민족에게 약속되었다.³⁹⁾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평화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전쟁의 천년왕국이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있어서의 참된 이상이자 유일한 것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나치의 정치가들은 이를 통해 대중적 예언자가 되었다.

셋째, 신화는 항상 극(劇 drama)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신화는 세계를 한 편의 장대한 드라마, 즉 신적인 힘과 마술적 힘 간의, 빛과 어둠 간의, 선과 악 간의 투쟁으로 생각한다. 신화적 사고와 상상력 안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라는 양극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신화도 거기에 악마적 힘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에 ‘신격화’ 과정은 마땅히 ‘악마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⁴⁰⁾ 여기서 카시러는 독일의 정치적 신화에 보이는 신격화와 악마화의 과정에 주목한다.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과 집단적인 욕구의 격렬한 감정이 총통에게 투여되어 인격화되고 신격화되었던 반면에, 악마의 역할을 ‘유대인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악마화했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악마화를 감안할 때만이 유대인에 대한 유례없는 박해를 이해할 수 있다. 카시러에 따르면, 독일에서 일어난 박해의 형태는 유대인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의미하는 기존의 반셈족주의(anti-Semitism)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⁴¹⁾ 독일의 반유대인 선전활동의 특수한 방법은 기존의 반셈족주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유대인의 완전한 섬멸로만 종식될 수 있는 생사를 건 투쟁으로 선포되었다. 그 결과 나치에 의한 엄청난 수의 유대인 대학살이 자행되기에 이르렀다.

39) 에른스트 카시러, 「유대교와 현대의 정치적 신화」(1944), 『상징 신화 문화』, 357쪽.

40) 에른스트 카시러, 「유대교와 현대의 정치적 신화」(1944), 『상징 신화 문화』, 357쪽.

41) 에른스트 카시러, 「유대교와 현대의 정치적 신화」(1944), 『상징 신화 문화』, 358쪽.

넷째, 나치의 정치적 신화가 활용한 기술들, 즉 새로운 ‘용어’와 ‘의례’는 이성적으로 자유로웠던 국민들을 목중하게 만들었다. 먼저 새로운 용어의 사례로 ‘승리를 통한 평화’를 의미하는 Siegfriede와 Siegerfriede⁴²⁾를 들 수 있다. 이 단어들은 형태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지만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자는 독일의 승리에 의한 평화를, 후자는 연합국의 승리에 의한 평화를 의미한다. Siegfriede에서 Sieg는 단수형으로서 이 단어는 오직 동질적이고, 신비한 통일체인 독일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이 Siegerfriede에서 Sieg는 복수형으로서 이 단어는 실제로 혼란스럽고 잡다한 구성체인 연합국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듯 이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정치적 선전술에서 달인들이었고, 그들은 인간 격정의 전 영역, 즉 증오, 분노, 오만, 경멸, 거만, 무시 등을 하나의 음절 속에 압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³⁾ 결국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새로운 용어들은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조직화하였다.

또한 정치적 신화가 그 힘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의례’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어떠한 정치적 행동이든 특수한 의례를 수반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게다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생활과 공적생활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생활까지도 새로운 의례의 범람 속에 말려들었다. 이들 의례는 모든 원시적 의례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이고 엄격한, 그리고 용서가 없는 것이었다. 모든 계급, 모든 성별, 모든 세대마다 각기 고유한 의례가 주어졌다. 어느 누구든 의례행위를 행하지 않고서는 거리를 활보하거나 이웃 또는 친구와 인사를 나눌 수 없었다. 지정된 의례를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었다. 어린아이들에게서조차 그것은 단순한 태만의 죄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것은 대역죄, 곧 총통과 전체주의 국가의 존엄에 대항하는 죄였다. 그렇다면 나치의 정치가들이 모든 새로운 용어와 의례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42) 에른스트 카시러, 「현대의 정치적 신화의 기술」(1945), 『상징 신화 문화』, 382쪽.

43) 에른스트 카시러, 「현대의 정치적 신화의 기술」(1945), 『상징 신화 문화』, 382쪽.

의례는 언제나 하나의 집단에 의해, 또한 대부분의 경우 그 부족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집행된다. 카시러에 의하면, 이들 의례에 참여하는 **남녀는 자신들의 개체성의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의례의 중요한 효과이다. 개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참된 도덕적 주체인** 것이다. 부족, 씨족, 그리고 가족 전체가 각각의 구성원 모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집단이 도덕적 주체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죄의 책임도 개인이 아니라, 전체인 집단에게 전가된다.⁴⁴⁾ 전체주의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미개사회에서 주술사의 손에 맡겨져 있었던 모든 기능을 떠맡지 않으면 안 되었다.

5. 맺는 말: 광장정치의 실제

카시러는 고비노와 칼라일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한다. 두 사람의 정치적 경향은 매우 유사한 듯 보이지만 차이가 있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18세기의 정치적 이상들, 즉 ‘자유’, ‘평등’, ‘박애’의 이상을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들로 카시러는 간주한다. 카시러는 칼라일의 영웅숭배와 고비노의 인종숭배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칼라일은 영웅 혹은 영웅숭배를 통해서 국민들을 결합/결속시키고 마침내 통일하려 한다면, 고비노는 인종불평등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분할/구분해서 최종적으로 분리하고자 한다.**⁴⁵⁾

칼라일에게서 새로운 영웅들은 모두 ‘신적 이념’(Divine idea)과 동일한 하나의 보이지 않는 큰 힘의 새로운 화신이었다. 그런데 역사적 문화적 세계에 대한 고비노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신적 이념이 사라져버린다. 고비노가 볼 때, 위인들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들의 온 힘은 땅으

44) 에른스트 카시러, 『현대의 정치적 신화의 기술』(1945), 『상징 신화 문화』, 385쪽.

45) Cassirer, *MS*, 243쪽.

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출생지의 흙 속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인들의 최선의 성질들은 그들의 인종의 성질들이다.⁴⁶⁾ 이러한 맥락에서 고비노는 존재론이 도덕에 앞서며, 또 어디까지나 도덕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한다. 한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나’ 라는 사실이 그에게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인간은 잘 행동함으로써 선(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할 때 그러니까 잘 태어났을 때 잘 행동한다는 것이다.⁴⁷⁾

필자는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장정치 현상과 카시러가 분석하고 있는 나치정권의 전체주의의 현상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광장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신화적 사고와 특정 정치세력과의 유착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동일한 목적에서 광장정치를 활용하고 있고 그 점에서 양상은 동일하다. 문제는 광장으로 달려 나오는 순수한 국민들이다. 그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은 본인들의 염원과 달리 특정 정파와 정치인들의 신화적 기술에 걸려들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철학자 이진우는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광장정치에서 **파시즘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고백한다.⁴⁸⁾ 파시즘은 권력을 위해 민중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반대세력을 포용하기는커녕 대화조차 안 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것은 파시즘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그는 일갈한다. 필자가 이진우의 생각을 여기에 옮기는 것은 광장정치에서 파시즘을 읽어내는 그의 차가운 분석 때문이다. 파시즘은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파편화된 민중을 결집한다. 기득권 세력의 불법과 비위를 밝히기 위해 광장에 모이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행위이지만, 부정과 불의의 의혹을 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

46) Cassirer, *MS*, 230쪽.

47) Cassirer, *MS*, 238쪽.

48) 경향신문, 2019.10.06. 이진우 칼럼 인용.

장에서 집단의 힘을 과시한다면 파시스트 중우정치가 된다. 파시즘은 권력 쟁취의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낸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선과 맞지 않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낙인찍는다. 괴물과 싸우다 보면 스스로 괴물이 된다는 니체의 말처럼, 이분법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선악의 이원론에 갇혀 있게 된다. 파시즘은 차이와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쩌다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소위 작가, 지식인이라는 운동권 엘리트들이 나타나서 궤변으로 인신공격을 한다. 집단성이 도덕성을 넘어설 때 파시즘은 고개를 쳐든다. 최고의 통치자가 민중과 직접 소통하려는 방식이 파시즘이다. 독일 철학자 베냐민이 파시즘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적 권력이 민중에게 나타나는 방식이다. 민심을 듣겠다고 의회를 무시하면, 그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때마침 진보 진영의 목소리도 전해졌다. 광장정치의 기제방식과 작동원리에서 필자가 밝혔듯이, 또한 이진우의 파시즘 진단에서 드러났듯이, 정치적 신화의 기술들은 우리의 광장정치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 선봉에 작가 공지영이 있었다. 공지영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권이 나라를 양쪽으로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라가 두 쪽이 났다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라며 “저들은 적폐이고 우리는 혁명이다. 저들은 폐기된 과거이고 우리는 미래이다. 저들은 몰락하는 시대의 잔재이고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영원한 빛”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쪽이 난 게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지는지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⁴⁹⁾ 1933년 독일의 나치정권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신화의 기술을 선보여 나치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했다면, 2019년 현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장정치라는 또 하나의 정치적 신화의 기술을 동원하여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외침으로써 권력의 유지와 권력연장을 시도

49) (서울=연합뉴스), 2019/10/07 기사 인용.

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되물어본다. 철학은, 철학자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다시금 카시러를 찾는다. 카시러는 『국가의 신화』(1946)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카시러는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현대 정치적 신화의 본질을 밝혀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이컨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자연은 정복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말을 통해서 베이컨이 목표하는 바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주인이 되게 하는 데 있다. 인간은 자연을 예측시키거나 노예화할 수 없다. 자연을 지배하려면 인간은 자연을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의 ‘오류들’과 ‘착각들’, 그의 인간적 ‘괴벽’과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⁵⁰⁾

정치적 신화에 맞선 이러한 투쟁에서 철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화는 논리적 이성적 논증에 의해 타파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신화는 이러한 논증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고, 논파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철학은 직접적인 정면 공격에 의해 신화를 타파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적(敵)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적을 안다는 것은 적의 약점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적의 강점을 아는 것이기도 하다.⁵¹⁾ 우리 모두에게 있어 정치적 신화의 강력함이 너무 낮게 평가받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그렇기에 우리는 적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수법을 철저하게 연구해야만 한다.⁵²⁾ 그 과정에서 우리 또한 **베이컨이 말한 여러 우상들(종족, 동굴, 시장, 극장)에**

50) Cassirer, *MS*, 294쪽.

51) 카시러가 신화를 알아야 한다고 말할 때, 안다는 것은 신화의 내용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화의 기능, 신화적 의식의 형식들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E.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II-신화적 사고』(1925), 심철민 옮김, 도서출판b, 2012. 32쪽.

52) 에른스트 카시러, 「현대의 정치적 신화의 기술」(1945), 397쪽.

서 벗어나야만 한다. 카시리는 이 이상들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집요한 것으로 시장의 이상을 꼽는다. 시장의 이상은 정치 안에 그 본성적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신응철, 『문화철학과 문화비평』, 철학과현실사, 2003.
- 신응철, 『카시러의 문화철학』, 한울출판사, 2000.
- Carlyle, Thomas., *On Heroes, Hero 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Humphrey Milford, 1841, Reprinted, 1928. (번역서: 『영웅숭배론』(박시인 역), 을유문화사, 1963.)
- Cassirer, E., “Judaism and the Modern Political Myths”, in: *Symbol, Myth, and Culture: Essays and Lectures of Ernst Cassirer 1935-1945*, ed. Donald Phillip Veren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9. 233쪽-241쪽. (번역서: 「유대교와 현대의 정치적 신화」(1944), 『상징 신화 문화』, 심철민 옮김, 아카넷, 2012. 349쪽-361쪽.)
- _____, “The Technique of Our Modern Political Myths”, in: *Symbol, Myth, and Culture: Essays and Lectures of Ernst Cassirer 1935-1945*, ed. Donald Phillip Veren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9. 242쪽-267쪽.(번역서: 「현대의 정치적 신화의 기술」(1945), 『상징 신화 문화』, 심철민 옮김, 아카넷, 2012. 363쪽-398쪽.)
- _____, *Zur Logik der Kulturwissenschaften Fünf Studien* (1942), Gesammelt Werke Hamburg Ausgabe, Band 24, Birgit Recki (hrsg.),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7. (번역서: 『문화과학의 논리』, 박완규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 _____,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zweiter Teil: Das mythische Denken* (1925),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번역서: 『상징형식의 철학Ⅱ-신화적 사고』(1925), 심철민 옮김, 도서출판b, 2012.)

- _____, *An Essay on Man* (1944),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0. (번역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옮김, 서광사, 1988.)
- _____, *The Myth of the Stat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46. (번역서: 『국가의 신화』, 최명관 옮김, 서광사, 1988.)
- _____, “Albert Schweitzer as Critic of Nineteenth Century Ethics” in *The Albert Schweitzer Jubilee Book*, ed. A. A. Roback (Cambridge, Mass: Sci-Art Publishers, 1946.)
- Hegel, G.W.F.,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52.
- _____,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ed. Johannes Hoffmeister, 4th.ed.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52.
-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Zweyte Auflage, Riga, bey Johann Friedrich Hartknoch(1786), hrsg. Wilhelm Weischde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4.
- _____,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and Other Works on the Theory of Ethics*, trans. T.K. Abbott, 6th. ed. London: Longmans, Green, 1909.
- Verene, Donald Phillip., ed., *Symbol, Myth, and Culture: Essays and Lectures of Ernst Cassirer 1935-1945*,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9.

On the Logic of Politics of Public Square -Focused on Ernst Cassirer's View Point-

Eung-Chol Shin (Dong-A University)

Nowadays, Korea society was divided two camps, that is,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by political circles and civil societies. And then the politics of public square substituted for the representative politics. In this situation, what can do philosophy and philosophers. How we can make a diagnosis and a prescription about this politics of public square. In this context, we have to consider a practice of philosophy and the role of philosophers.

In this process, we will focus on Ernst Cassirer's view point in terms of his political philosophy. Cassirer was strongly resisted for Nazism and sharply analyzed about ideology of Nazism. Therefore we will use Cassirer's view point in order to examine the logic of politics of public square in our society. In this article, firstly we will deal with a practice of philosophy and philosophically define about the phenomena of politics of public square. And nextly we will reveal the mechanism and operation of politics of public square. Finally we will disclose the logic of politics of public square.

Key-words: Politics of public square, Political Myth, Hero Worship, Inequality of Race, Fascism. E. Cassirer

철학탐구 제56집

신응철 e-mail: shineungchol@hanmail.net

투 고 일	2019년 10월 15일
심 사 일	2019년 11월 13일
게재확정	2019년 11월 13일